강릉원주대신문

창 간 | 강릉대신문 1979년 6월 30일 / 원주대학신문 1991년 9월 17일
재창간 | 강릉원주대신문 2009년 4월 13일
발행인 | 박덕영 **주간교수** | 김두현 **편집인** | 반소정

TH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5년 3월 6일 목요일 106호

2면 대학

국제 교류 프로그램… 아시아권에 이어 유럽권 대학까지 확대

3면 여론

우리대학 졸업자 취업, 안녕하신가요?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새롭게 신설되는 자유전공

5면 사회

아름다운 황혼기는 옛말…, 노인복지의 폐해, '태극기 부대'

비상계엄직후, 사회 곳곳에서 성명문

6면 특집

인공지능과 지능형 자동화의 시대

7면 기획

25학번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교내 동아리 톺아보기

양극단으로 갈린 청년들

비상계엄부터 진실공방까지, 청년들의 극단적 행보와 개헌 논의



▲ 탄핵 찬성 집회(좌), 탄핵 반대 집회(우)의 시위현장이다. 사진=이준기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반국가세력 척결"
"자유대한민국 수호"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에 대한 기대를 품는 연말, 갑작스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의 폭풍에 휩싸였다. 일부 반국가 세력이 행정부를 마비 시킨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10시 2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포고령의 내용들은 '국회와 정당에서의 정치활동의 일체 금지',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인 의료인의 본업 복귀', '언론 출판의 통제'등이 포함됐다.

이후 계엄사령부를 두고 정예 특수부대를 필두로 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사실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야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시 여당의 한동훈 대표까지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한둘 모여 총 190명 재석 중,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급박하게 진행되던 비상계엄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한 윤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되었다. 첫번째 탄핵소추안은 12월 7일에 여당의 단체 불참으로 폐기되었고,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통과되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사태에 이르렀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졌다. 다만 한 총리도 야당과의 마찰로 탄핵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어,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체제인 '대행의 대행체제'가 만들어졌다.

체포까지도 난항,
대통령 관저에 갇린 '석열산성'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경찰과 공수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만 연이은 '서부지검 논란'과 '불법수사'를 빌미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의 거처인 한남동 관저를 뚫어내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 경호처의 인간띠, 차벽과 같은 '석열산성'을 통해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 시켜, 수사에 며칠 간 난항을 겪지만,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긴 알력 다툼 끝에 결국 1월 15일 10시경 윤 대통령은 체포되었다.

진실은 무엇일까, 이제는 헌재의 시간

체포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졌다. 주로 비상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무엇을 지시했는지에 관해 군 사령관들과의 진실공방이 진행됐다. '일부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지막 변론까지 끝난 시점에서 탄핵심판의 결과는 3월 중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정국 속,
청년들의 정치적 양극화

비상계엄 이전에도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사건과 더불어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같은 사안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급속하게 추락했다. 이런 사안들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를 주도로 탄핵 여론이 형성되었고, 비상계엄 직후 이러한 탄핵 여론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다. 특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까지의 시위에서 2030세대 주도로 민중가요가 아닌 대중가요와 팝송이, 깃발이 아닌 응원봉이 등장하면서 축제와 같은 새로운 시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선을 끌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체포 시기가 다가오자,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회 백골단과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대표적이다. 1월 10일 국회 소통관의 기자회견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해 소개한 '백골단'은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관저 주변에서 시위를 한 청년들로,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하는 일종의 자경단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은 1980~1990년 당시 일어난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전경 체포조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되어 논란이 일었다. 1월 19일에는 체포된 윤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새벽 3시경 법원을 습격 및 점거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서부지법 난입사태 또한 체포된 1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30세대라는 점에서 일부 청년들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온라인에서도 드러났다.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당시 여러 대학에서 "뭐 에브리타임은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대다수임?", "그냥 나라가 거대한 간첩 소굴임"과 같이 양극단의 극성 지지층들이 할만한 발언들이 다수 HOT 게시물로 기재됐다. 본래 동아리 및 활동 홍보와 교내 문제를 논하는 장으로 활용되던 에브리타임이 한순간 '정치 투기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현재까지도 비상계엄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기성정치를 탈피하는 개헌안에 대한 얘기도 공식 선상에 올라와 있다. 이러한 개헌 논의가 오가는 만큼 2030세대인 청년들도 양극단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닌 한국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어떤 것을 변화해야 할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준기 기자

국제 교류 프로그램… 아시아권에 이어 유럽권 대학까지 확대

늘어난 국제교류의 창

동유럽 3개 대학과 MOU 체결

'글로컬 30 사업' 선정,
유럽 국제 교류 확대 진행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 대학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동유럽 3개 대학과 국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규모를 확대하였다. 지난해 12월 박덕영 총장은 "아시아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대학 국제 교류 국가의 다변화를 위해, 유럽 문호를 넓히고자 협정을 진행하였다"라고 밝혔다.

협정 대상 대학교는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University of Warsaw) ▲폴란드 포즈난 아담 미츠키에비치 대학교(Adam Michiewicz University, AMU) ▲헝가리 외트뵈시 로란드대학교(**Eötvös Loránd University, ELTE**)이다. 우리 대학은 이번 협정을 통해 유럽 명문 대학과의 국제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교수 교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 대학 학생들이 더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폴란드-바르샤바 대학
포즈난 아담 미츠키에비치 대학

폴란드 내에서 두 개의 대학교와 협정을 체결한 것에 관해 박덕영 총장은 "국제 교류에 대한 대학의 조건 차이 또는 양국 학생의 선호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두 개의 대학교와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전했다. 아담 미츠키에비치 대학 라파우 비트코프스키(Rafal Witkowski) 부총장은 "양 대학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은 상호 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문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하며 기대케 했다.

폴란드 최대 규모의 공립 종합대학교 바르샤바 대학(University of Warsaw)은 25개 학부와 30개의 학술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역대 2명의 대통령과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해 '피아노의 시인' 쇼팽을 배출할 정도로 우수한 대학교로 인정받으며, 화학·물리학·생물학·수학·컴퓨터 과학·지리학 분야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진다.

폴란드의 유명 시인인 '아담 미츠키에비치'의 이름을 따와 명명한 포즈난의 아담 미츠키에비치 대학(Adam Michiewicz University, AMU)은 언어학과 환경 과학, 물리학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내며, 폴란드 최대 규모의 학술 도서관과 현대적인 연구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아담 미츠키에비치 대학은 현재 우리나라 여러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국악원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사물놀이와 전통춤도 교육하고 있다.

헝가리 외트비시 로란드 대학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외트뵈시 로란드 대학(**Eötvös Loránd University, ELTE**)은 1635년 개교해 헝가리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대학교이다. 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해 울프 수학상, 폴커큰상, 아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하는 등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교육·연구 수준을 자랑한다.

외트뵈시 로란드 대학 한국학과의 베아트릭스 메치(Beatrix Mecsi) 학과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전부터 헝가리에서는 한국문학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져 왔다. 노벨상 수상 소식 이후에는 헝가리 문학계가 한강 작가의 작품을 더욱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외트뵈시 로란드대학 라슬로 보리히(Laszlo Borhy) 총장은 우리 대학과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해, 양 대학 간의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발전을 다지게 되었다.

일본·중국·대만…
기존의 교류 프로그램도 주목

새로 체결한 동유럽권 대학 이외에도 아시아권 대학과의 교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매년 해외 자매대학 ▲일본 나가사키외국어대학 ▲일본 가고시마대학 ▲중국 하얼빈공업대학 ▲대만 명전대학으로 파견할 교환학생을 선발·모집하며 교류 중이다.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동안 자매대학에서 학부 수업을 진행하고, 매 학기 6학점 이상 21학점 이하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해외 자매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 추진 목적이다.

대만 명전대학 교환학생 파견을 경험한 박민이 학우(중어중문학과 21학번)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해외에 나가 살아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우고 느끼기에 교환학생은 정말 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든 젊을 때 마음껏 도전해 보시길 바란다."라며 교환학생 경험 소감에 대해 전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염성사범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머물렀던 김도연 학우(중어중문학과 21학번)는 "당시 한 국인이 한 명도 없던 새로운 환경에서 1년간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돌이켜보면 사심 없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 수업 청강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던 교수님, 중국어가 서툴던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도시 구경시켜 줬던 중국인 친구들, 집에 초대해서 한식을 만들어주셨던 직원분들 등 주변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1년을 마칠 수 있었다."라며 중국에서의 생활을 전했다. 또한, "이번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사람의 진심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기에 기회가 된다면 졸업 후 다시 한번 중국 유학에 도전해 볼 생각이다."라고 값진 경험임을 전했다.

교환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파견을 위한 어학성적 자격증 요구 기준에 충족한 자 ▲본교 2학기 이상 등록한 학부생 ▲국외 자매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실적이 없는 자 등 지원 자격을 갖춰야 하며, 서류와 면접 평가 등의 선발을 거쳐 파견 학생이 결정된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유의 사항 등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호주·필리핀·중국…
4주 간의 어학연수로 떠나자!

학부생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교환학생과 달리,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지원 자격부터 활동까지 더 간단하니 도전하기에 더 수월할 수 있다. 방학 중 재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 ▲호주 디킨대학 ▲필리핀 데라살아라네타 대학 ▲중국 하얼빈공업대학에서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4주간 80시간 커리큘럼으로 짜인 프로그램에서는 어학 수업뿐 아니라 주말에는 해당 나라의 문화 체험활동, 역사 문화 관광 등 해당 나라를 탐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 하얼빈공업대학으로 단기 어학연수 교류에 참여한 류혜원 학우(중어중문학과 21학번)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여름방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하는 만큼 경험한다.' 이 말이 정말 와닿는 한 달이었다. 해외에 나가서 부족한 언어에 자신감을 잃어 주눅이 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고 다가가니 같은 교환학생 신분인 태국인들과 친해져 함께 어울릴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들과 교류할 일이 자주 없었는데, 학생 신분의 어학연수로 해외에 한 달간 거주하며 좋은 사람도 많이 알게 되어 뜻깊은 여행이 됐다. 가능하다면 더 오래 머물고 싶을 정도로 하얼빈에서의 한 달이 즐거웠다."라며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몸소 전해주었다.

또한, "교환학생처럼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해외에서 체류해야 하는 프로그램과 다르게 단기 어학연수는 한 달 동안 하는 짧은 프로그램이다 보니, 부담 없이 여행 느낌으로 해당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낀다. 비교적 시간이 많은 학생 시절 한 달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단기 어학연수를 적극 추천한다."라며 해당 프로그램을 추천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혔다.

캐나다 빅토리아대학에서는 무료 체험 '빅토리아 다운타운 관광, 커피와 함께하는 친목 도모, 국제 학생을 위한 밤' 등의 문화 관광과 유료 체험인 '고래 관광, 부차드 가든 관광, 밴쿠버 관광'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호주 디킨대학에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 필립 아일랜드, 힐스빌 생츄어리, 퍼핑빌리 레일웨이', 필리핀 데라살아라네타에서 '팍상한 폭포, 마닐라 투어, 따가이따이, 민도르 섬' 등의 문화 체험이 마련되어있다.

교환학생 파견 신청은 해당 대학의 학기 시작 최소 10개월 전,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신청은 최소 4개월 전부터 이루어지니, 지원 마감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도 무심코 지나쳤던 교류 프로그램 신청 공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국제 교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김혜미 기자

2025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안내

2025학년도 수업기간

1학기 : 2025. 3. 4.(화) ~ 6. 20.(금)

2학기 : 2025. 9. 1.(월) ~ 12. 2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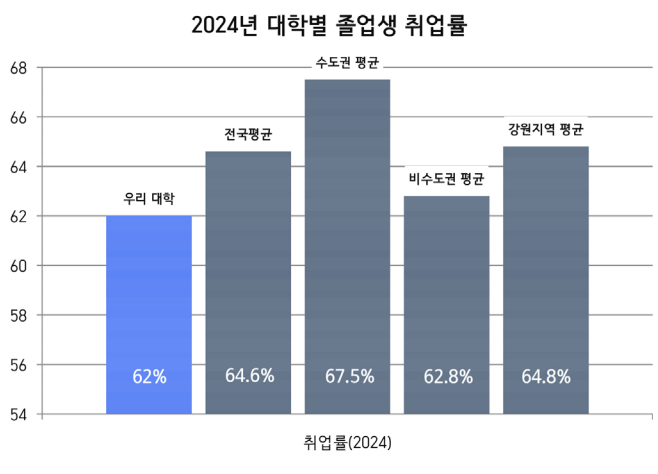
2025학년도 1학기 보강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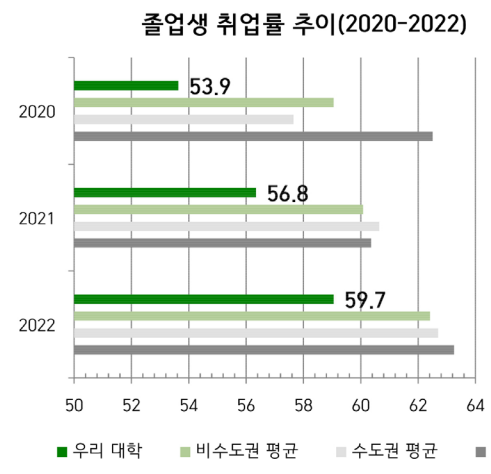
1학기		
공휴일/(임시)휴업일		보강일
근로자의날	5.1.(목)	6.12.(목)
어린이날	5.5.(월)	6.11.(수)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	5.6.(월)	6.10.(화)
현충일	6.6.(금)	6.13.(금)

03.01 ~ 03.01	2025학년도 제1학기 개시
03.04 ~ 03.04	2025학년도 제 1학기 개강
03.04 ~ 03.10	제 1학기 수강신청 변경
03.24 ~ 03.24	수강신청 취소 마감
03.28 ~ 03.28	복학신청 마감(수업일수 1/4선)
04.07 ~ 04.07	휴학신청 마감(수업일수 1/3선)
04.24 ~ 04.24	수업일수 2/4선
05.26 ~ 05.26	수업일수 3/4선
06.10 ~ 06.13	보강기간
06.16 ~ 06.20	제 1학기 기말시험 및 종강
06.23 ~ 06.23	하계방학
06.27 ~ 06.27	제 1학기 성적 입력 마감
06.30 ~ 07.04	제 1학기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우리대학 졸업자 취업, 안녕하신가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 대학 졸업 후 취업은 학생 대다수에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취업난으로 대학 졸업생들도 취업 한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주목해야 하는 것이 '졸업자 취업률'이다. 졸업자 취업률은 학교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 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점검이 필요하다.





구분 \ 년도	우리대학	지방	수도권	전국평균
2020	53.9	59.7	58.2	63.4
2021	56.8	60.8	61.4	61.1
2022	59.7	63.3	63.6	64.2

▲ 통계 출처=대학알리미(2024년 기준), 한국취업정보기술(2022년 기준)

우리 대학 졸업생 취업률 현황

우리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알리미에 집계된 수치에 따르면, 2020년 53.9%, 2021년 56.8%, 2022년에는 59.7%로 매년 증가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전체 취업률 평균이 63.4%에서 61.1%로 뒷걸음질한 것에 비해 양호한 성장세이다.

하지만 타 대학 졸업생 취업률 평균 수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아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0년부터 3년간의 추이에서도 비수도권·수도권·전체 평균에서 뒤떨어진 졸업생 취업률을 보여줬다. 가장 최근인 2024년 자료 역시 대학별 졸업생 취업률 통계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취업률은 62%로, 전국 평균(64.6%)과 비수도권 평균(62.8%)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강원 지역 평균(64.8%)보다도 낮았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며 타 대학 군의 평균 취업률을 따라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대학 졸업자 평균 취업률이 경제난으로 인한 취업 한파로 2023년 66.3%에서 64.6%로 3년에 하락 폭을 보였다. 그에 견주어도 우리 대학의 졸업자 취업률은 안정적인 상승궤도를 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 대학 졸업생 취업률에 기여하고 있는 걸까?

대학 내 마련된 프로그램 검토

우리 대학 학생성공지원과는 취업률 상승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잡카페 내 취업 상담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되어 학생들이 언제든 취업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문 컨설턴트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첨삭은 물론, 면접 준비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방학 기간 집중적으로 운영된 맞춤 강좌는 실무력 강화와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대표적인 강좌로는 ▲엑셀 실무 강좌 ▲예비사회인 서류작성 강좌 ▲해외 취업 동향 특강 ▲동계방학 온라인 직무수행 프로그램 등이 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AI 자기소개서 작성 툴도 마련되어 있다.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맞춤형 자기소개서를 생성해 주는 이 도구는 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려운 초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진로·취업 상담 ▲자기소개서 작성법▲면접역량 강화 프로그램 ▲커리어 로드맵 경진대회▲직무분석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들도 유지될 예정이다.

우리 대학 학생성공지원과 진로취창업지원팀 양선모 팀장은 전년 대비 약 10% 상향해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직 세부 계획 검토 중이기는 하나, 예산 책정 현황에서도 전년도 4억 8천만원에서 올해 7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2% 상향된 것이 눈에 띈다. 전년도 운영된 진로·취업프로그램은 452개였다. 게다가 원주캠퍼스에는 이전까지 없었던 대학 소속의 진로취업 컨설턴트가 1명 신규 배정된다.

취업 프로그램 확대, 학생성공지원과가 내놓은 전략은?

양선모 팀장은 "앞으로 '강원지역 우수기업 맞춤형 집중 취업 준비반'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강원지역에 있는 우수기업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우리 대학과 연계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강릉·원주지역에 각각 6명과 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이다."라며 실적이 좋은 프로그램의 확대를 예고 했다. 또한 "올해 1월 중에도 수도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수도권 집중취업전략 캠프를 운영한 바 있다. 이처럼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연고지 근처에서 취업 역량을기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라 답했다.

이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한 ▲진로·취업 캠프 ▲대동제 슈퍼커리어 데이 행사 ▲잡카페 특화 프로그램(진로취업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공예) ▲중간·기말고사 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계획 중임을 밝혔다. 그밖에 "취업 동아리 지원 확대, 공공기관이나 타 대학, 기업체들과의 연계 강화를 목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업률 향상의 열쇠, 적극적인 프로그램 활용

24학년도 진로·취업프로그램 누적 참여 인원수는 약 25,000여명으로 23학년도 대비 5.7% 증가했다. 올해 동계방학 중 운영된 취업캠프에서도 학생 편의성 증진 및 학생 참여도가 매우 높아 모집률 100%를 달성한 바 있다.

양선모 팀장은 마지막으로 "3학년 때까지 아르바이트나 전공 학습에만 열중한 나머지 4학년이 되어 막상 취업 준비를 하려면 막막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그런 학생들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진로설계와 함께 자격증 등 기본 스펙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생들을 응원하는 심정을 밝혔다. 25학년도에는 더 많은 학생이 취업 프로그램을 활용해 취업률 상승 궤도를 이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민경 기자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새롭게 신설되는 자유전공

2025년을 맞이하며, 우리 대학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리 대학이 글로컬 30 사업에 선정되면서, '26학년도 통합출범' 및 '25학년도 무전공학과 신설'이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학교는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고, 지난 1월에는 성과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포럼도 열렸다. 포럼에서는 '교양기초교육본부'가 자유전공학부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그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교과전형 41명, 종합전형 21명, 정원 외 선발 1명으로 총 63명을 모집하지만, 앞으로 인원을 점차 늘릴 전망이다.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다양한 전공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폭넓은 지식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학부의 최종 목표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전공과목을 선택하게 돕고, 전문적인 진로 상담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유전공학부는 기존의 학과와는 다르게 1학년 때부터 전공을 배우지 않는다.

1학년 때는 교양과목을 위주로 공부한다. 이중 자유전공학부 전용으로 신설되는 '진로와 취·창업 영역'(2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기초 3학점 2과목을 수강(전공기초가 없는 학과는 대체 교과목 지정) 후 1학년을 마친다. 2학년이 되면 자신이 선호하는 학과에 소속되어 다른 학생들과 같이 전공필수와 심화전공 과목을 수강하면 된다. 자유전공학부 이재용 교수는 "자유전공학부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전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다."라며 자유전공학부가 추구하는 교육 방침을 말했다. 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2. 1학년 이수 내용

영역	세부영역	이수 교과목 1학기	이수 교과목 2학기	소계	비고
교양	기초교양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3) 글로벌의사소통 중 1(3)	비판적 사고와 말하기(3) 디지털리터러시(e) 중 1(3)	12학점	학부 분반
	균형교양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3영역 중 1과목(3)	3영역 중 1과목(3)	6학점	자유 선택
	해람교양	(신설)진로탐색형 교과목(1) * 진로와 취·창업 영역/ 자전학부 전용, 2h	(신설)전공탐색형 교과목(1) * 진로와 취·창업 영역/ 자전학부 전용, 2h	4학점	학부 분반
		-	지역이해와 봉사 영역(2)		
	학점 소계	10	12	22학점	
학부 전공 (학과 배정 전)	학문기초	희망학과 **전공기초** 2과목 이상 선택수강(3학점×2) * 전공기초가 없는 학과는 대체교과목 지정		6학점	의무 선택수강
	학점 소계	6		6학점	
학부 이수기준 학점 계		10~16학점	12~18학점	28학점	
자율수강		2~8학점	0~6학점	8학점	
+비교과		- 자기주도 학습법, 기초학력 증진, 희망학과 멘토링, 글로벌체험 등 역량강화 및 생활적응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RC, Pre-college, OT, 전공박람회, 교과연계 전공탐색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전공탐색 기회 제공			

▲ 자료제공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내가 만들고 이루는 성공스토리, 학생 설계 전공"

우리 대학과 2026년 통합 예정인 강원대학교에서도 2018년부터 자유전공학부를 운용했다. 우리 학교와 동일하게 1년간 다양한 전공을 탐색한 후 2학년이 되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여 해당 학과로 진학하는 '학과진학형(1년제)'과 '학생설계전공형(4년제)'이 있다.

학생설계전공형은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에 특화된 전공을 학생이 스스로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전공을 이수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공제도이다. 2023년도 자유전공학부 입학생부터 학생설계전공을 기본전공으로 이수하기 시작했다. 학과 배정 전인 5월과 11월에 신청 가능하며, 최대 20명이 선발 정원이다.

학생설계전공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진로에 따라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졸업 이수 학점이 다른 학과나 전공에 비해 낮아 학점 이수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보다 여유를 갖고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처럼 자유전공학부가 성공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실패한 학교들도 존재한다. 자유전공학부의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관하여 갈피를 찾지 못하고 2학년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자유전공학부를 시행하는 이유가 사라진다. 또한 관련 전공에 대해 기초를 다지고 온 학생과 기초를 다지지 못한 학생 간의 사이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자유전공학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 자유전공학부 진학을 희망한다면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길 바란다.

김도현 기자

경포호 인공분수 찬반격화

최근 지역 시민들 간 경포호 인공 분수 설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경포호는 강릉시경포해변에 인접한 호수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의 보금자리이자 철새도래지로 강릉시의 대표 관광명소 중 하나이다.

강릉시는 작년 10월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400m, 최고 높이 150m의 인공분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강릉시가 추진 계획을 밝힌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 등에서 찬반 논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수 설치를 찬성하는 인근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경포호 수질개선과 인프라 증가로 발생하는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강릉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인공 분수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릉 지역 21개의 시민단체는 분수 설치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고, 인공 분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포호에 인공 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 역시 존재한다. 환경단체는 '자연 호수에 인간이 인공적으로 분수를 설치한다면 자연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자연 호수라는 경포호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일부 시민 단체는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어떻게 해야 경제적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포호 인공 분수 설치 관련 강릉시와 시민 단체들은 찬반 갈등의 합의점을 찾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토론과 상호 의견 존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할 것인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송지훈 수습기자 ▲ 경포호 인공분수 조감도 사진=강릉시청

K패션 불황… 소비 위축에 이어 신뢰도 하락까지

패션 업계 불황,

2025년 채용계획 전년 대비 72% 감소

얼어붙은 날씨처럼 패션 업계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침체 현상이 지속된 경제불황, 고물가와 맞물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간절기가 사라진 이상기온 현상의 영향으로 'Spring/Summer, Fall/Winter'처럼 4계절을 고려해 제품을 출시하는 패션 업계에서는 2024년, 신음의 해를 보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 불황에 패션 업계는 채용인원 감축에 나섰다. 섬유산업연합회가 조사한 '2024년 섬유제조 패션산업 인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70% 이상 채용인원을 감축할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에 이어 신뢰도 하락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트렌드 코리아 등에서는 2025년의 핵심 유통 키워드로 스네이크(SNAKE·뱀)를 꼽았다. 그중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시한 스네이크 모델은 다음 사진과 같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고조에 생존(Survival)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유통기업은 차세대(Next)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모델을 찾아야 한다"라며 "AI와 K-culture에서 성장 돌파구를 찾고, 가격 중시 소비 트렌드(Economical consumption)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표> 2025 유통시장 5대 키워드

S (Survival)	N (Next Biz model)	A (AI)	K (K-culture)	E (Economical consumption)
경기 둔화, 불확실성 고조에 '생존이 먼저'	경쟁심화에 차세대 'Biz모델 및 수익성모델' 찾는다	'AI' 통해 비용 낮추고 운용효율성 높인다	'K-컬처'에서 성장 돌파구 엿본다	저성장에 소비자 '가격중시' 뚜렷해져

▲ 2025 유통시장 5대 키워드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제시한 키워드와 달리 패션 업계는 연이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한 패션 브랜드 '스투시' 상품이 가품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논란은 신발 전문 유튜버 '상자의 신발상자'가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스투시 맨투맨을 외부 기관에 감정을 문의한 결과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확산했다. 이 유튜버는 리셀 플랫폼 '크림'(KREAM)에 이 상품을 게시했다가 가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 제재를 받았다면서 한국명품감정원의 가품 판정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마트는 해당 상품의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협의, 여러 감정 기관에 검증을 맡겼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마트는 이전에도 명품 패션 브랜드 '몽클레어'의 패딩을 가품 정황이 의심된다며 전량 회수 조치한 이력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패딩 충전재 혼용률 논란도 있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가 판매하는 패딩 충전재의 혼용률이 기재된 정보와 다르다는 주장에 6개 브랜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라퍼지스토어, 페플, 인템포무드, 오로 등이 오리털 패딩이라고 판매한 제품은 기준 미달이었다. 해당 조사에 적발된 업체는 무신사 랭킹 상위권을 유지하는 브랜드였기에 소비자들에게 더욱 충격을 주었다. 그중 라퍼지스토어는 '덕다운 아르틱 후드 패딩' 제품이 '솜털 80% 사용'이라고 적시했으나 실제 사용량은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다운 표기 기준은 제품의 솜털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라퍼지스토어의 경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들은 노(NO)소비 코어

이처럼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연이은 논란에 피로를 느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생활방식을 뜻하는 노(NO)소비 코어가 대두되고 있다. 정확한 명칭은 '과소소비 코어(Underconsumption core)'로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경기 불황에 위기를 느낀 미국 젠지(Gen Z)세대 사이에서 처음 등장했다. 노소비 코어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새로운 옷보다는 안 입는 옷 수선하기', '한 번 구매한 제품은 끝까지 사용하기' 등이 있다.

점점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K패션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소비자와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등 돌파구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



▲ 25 F/W 서울패션위크 사진=서울패션위크 인스타그램

권혁주 수습기자

2025학년도 언론원 학생기자(국원) 모집

대학 신문 / 방송에 관심 있는 학생기자(국원)을 모집합니다!

[신문사, 영자신문사, 방송국(강릉 / 원주)]

- 신청 방법: 네이버 폼 (QR코드 참고)
- 기자혜택

1. 학생기자증 발급
2. 신문, 방송 원고료 등의 기자활동 장학금 지급
3. 소속 언론사 운영 공간 제공
4. 기타 언론활동 업무 지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언론원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언론원 (033-640-2614)

아름다운 황혼기는 옛말…. 노인복지의 폐해, '태극기 부대'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됨에 따라 극우 세력, 일명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시위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시위 참가자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태극기 부대 진영에서는 노년층이 참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극우 단체에 노년층이 몰리는 것일까?

연령층으로 나누어진 시위

태극기 부대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고 시위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글이 최근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발견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집회 알바'라고 검색만 해도 '광화문 집회 알바 인력' 등 여러 구인 구직 글이 뜬다. 실제 본 기자가 해당 극우 세력 시위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려 광화문에 방문했을 당시, 시위 참여자에게 5~7만 원 정도 일당을 준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시위 대행 아르바이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루 일당 5~7만 원은 종일 폐지를 줍는 것보다 많은 액수이다.

심각한 노인 빈곤율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20.2%)과 미국(22.8%)의 두 배 수준이다. 파산 신청률도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저출산에 맞춰져 있다. 게다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공적연금 정책이 미비한 것도 문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소외 행태로 인해 노인들은 사랑제일교회, 극우 세력에 의해 일명 '알바 부대'로 투입되며, 시위의 진정성이 퇴색되는 것이다.

빨간불 켜진 노인 복지 실태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 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층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노인층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노인층은 그다지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다. 한국의 노인 차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 가운데 2위로 심각하며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빈곤과 우울감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난다.

노년기 우울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고립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라인상에서 노인을 혐오하는 댓글들은 비일비재하며 '노 시니어 존', '노 실버 존' 카페나 운동시설 등이 등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결국,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노년층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우울증 환자의 35.69%가 60대 이상이다. 이는 4년 전보다 11%가량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체 일반 가구 중 9.7%로, 10가구 중 1가구는 노인 혼자 사는 가구이다. 결국 독거는 외로움을, 외로움은 우울감을, 빈곤은 노인에게 절박함이라는 박차를 가했다. 오갈 데 없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태극기 부대는 사회 내에서 존재감을 인정받는 하나의 창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장미를 요구하지만 결국 빵이 필요한 현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된다. 노인은 배척하고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우리가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미래이다. 청년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빈곤한 노후', '부족한 노인복지', '노인 혐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치판에서는 '손해 보는 불쌍한 청년', 그리고 '이기적인 무임승차 노인'의 프레임으로 경쟁을 부추긴다. 끝없는 세대 갈등은 결국 혐오로 이어지고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을 복지 인프라, 사회적 공감대는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이다. 노인의 복지정책을 등한시한다면 촛불 시위 참여자 중 누군가는 태극기 부대의 노인이 되어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노인의 복지정책을 등한시한다면,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노인들도 태극기 부대의 일부가 되어있을 수 있다.

반소정 기자

사라지는 은행 점포에 갈 곳 잃은 고령층

은행 점포 1년간 53곳 사라져

국내 은행들의 점포 통폐합과 축소가 이어지며,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더욱 하락하고 있다. 2025년 1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 점포 수(해외 점포 포함)는 총 5,849곳으로, 1년 전(5,902곳)보다 53곳 줄었다. 은행 점포 수는 지난 2012년 4분기 말 7,835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017년 4분기 말 7,000곳 아래로, 2022년 3분기 말 6,000곳 아래로 떨어진 뒤 감소세가 다소 둔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분기마다 감소하고 있다. 분기별 점포 수가 거꾸로 늘어난 경우는 지난 2018년 3분기 중 6,960곳에서 6,966곳으로 6곳이 증가한 이후 6년 동안 한 차례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 심한 지역일수록 접근성 낮아져… 강원도도 마찬가지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은행 점포 접근성이 낮아 고령층의 금융 소외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부산, 대전은 은행 점포 이용을 위해 소비자가 최소한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1km를 넘지 않았지만, 강원도는 최대 27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 거리가 상위 30곳을 보면, 대부분 20㎞ 이상이고,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방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특히 강원도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00명당 은행 지점 수가 0.39개로, 전국에서 가장 적게 분포되었다.

우체국은 사라지는 은행 점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금융당국은 올해 6월부터 전국 2,500개 우체국에 금융 대리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우체국 은행 대리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은행 대리업이란 우체국 등 비은행 기관이 은행 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대리업 제도를 도입해 고령층과 같이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은행은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다. 은행 점포의 축소는 이러한 필수 서비스의 접근 기회를 불평등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경제 규모가 작은 지역, 비수도권, 그리고 디지털 소외 계층은 점점 더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은행 점포 축소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주 기자

비상계엄 직후, 사회 곳곳에서 성명문

지성인들을 너머 종교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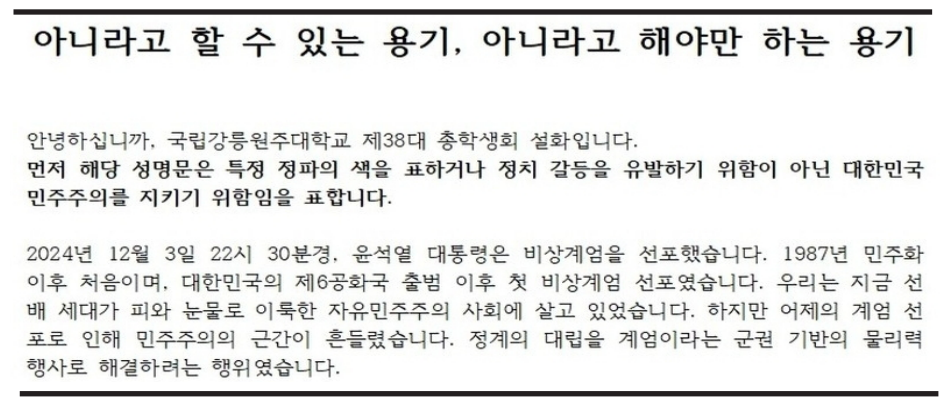
비상계엄이 일어난 직후,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중 가장 먼저 우려를 표한 건 언론 단체였다. 현직 언론인과 언론학자들이 모인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언론 단체에서는 긴급회견을 열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설명한 계엄 선포 배경은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헌정질서 파괴다"라고 비상계엄을 비판했다.

종교 단체도 마찬가지였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한국의 여러 종교 단체가 모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경우, '국민의 평안과 행복이 우선입니다'라는 성명문에서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 훼손 상황은 국민을 고통과 불안에 몰아넣었다"라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나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에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던 종교 단체가 이러한 성명문을 직접 낸 것에 대해서는 이번 비상계엄을 심각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대학가에서 울려 퍼진, 성명문들

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모여 활동하는 대학 내의 자치기구들 사이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자치기구가 각 대학의 총학생회이다. 우리대학 총학생회인 '설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아니라고 해야만 하는 용기' 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게재했다. 전반적인 내용은 '국가가 군권이라는 물리력을 통해 의사 표현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회의사당에 물리력의 상징인 군인이 투입된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목소리를 낸 또 다른 자치기구는 각 대학 언론사였다. 여러 대학 언론사에서 성명문을 냈고, 우리대학의 신문사도 마찬가지였다. 전반적인 내용은 '거대야당과 일부 종북세력의 위협이 있었음은 분명하나, 비상계엄은 너무 지나친 처사'였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아니라고 해야만 하는 용기

안녕하십니까,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제38대 총학생회 설화입니다.
먼저 해당 성명문은 특정 정파의 색을 표하거나 정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함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임을 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며,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첫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배 세대가 피와 눈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계엄 선포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정계의 대립을 계엄이라는 군권 기반의 물리력 행사로 해결하려는 행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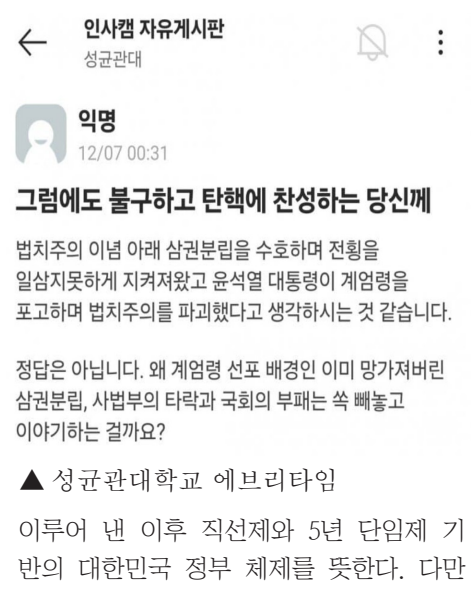
▲ 우리대학 설화의 성명문 중 일부 발췌

사진=설화

는 점과 포고문 중, 파업 중인 전공의에 '처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을 지적했다.

에브리타임을 뒤흔든 성대생의 글

이러한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여론이 들끓는 와중 성균관대학교에서 익명의 학생이 쓴 글이 화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라는 제목의 글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하는 당시 여론에 반하여, '야당을 중심으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국회가 타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글은 성균관대 에브리타임을 필두로 우리대학 및 타 대학 에브리타임과 소수 극우 언론으로 퍼져 나갔으며, 현재까지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대학생들의 여론에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



인사캠 자유게시판
성균관대

익명
12/07 00: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

법치주의 이념 아래 삼권분립을 수호하며 전횡을 일삼지못하게 지켜져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왜 계엄령 선포 배경인 이미 망가져버린 삼권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 성균관대학교 에브리타임

지속될 진실 공방, 개헌에 시선집중

계엄 이후,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알력 다툼 끝에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증인들과는 엇갈리는 윤 대통령의 진술로 헌재는 진실공방의 장으로 변질됐다. 그리고 지금 2월 말의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최종적인 탄핵심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정치원로들과 대선 잠룡들은 현재 6공화국의 '87년체제'를 종식시키고자, 개헌안에 시선을 돌리는 모양새이다. 87년체제란 1987년 민주화를 이루어 낸 이후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기반의 대한민국 정부 체제를 뜻한다. 다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시작으로 지역감정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와 승자독식형 대통령제라는 점, 그리고 87년체제 하의 대통령들이 모두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에 공감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원내각제와 부통령제 두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미국식 4년 중임제를 채택하여, 임기를 조금 하향 조정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추후에는 2030세대가 정치의 주요 세대로 부상될 만큼, 이와 같은 개헌안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기 기자

인공지능과 지능형 자동화 시대 : 인류 그리고 기술 혁명 사이

"Hey, Google? 오늘 날씨 어때?"

처음 만났을 때는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해, 두세 번을 반복해 물어야 했으나 최근에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무엇인가 어설픈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았던 AI라는 신기술은 자연어 처리, 빅데이터, 딥러닝을 통해 발전하며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크게 열었다. 또한, 우리는 GPT(지피티)라는 딥러닝을 통한 언어 학습 모델을 통해 코딩,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AI의 도움을 받아,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 패권 전쟁:
美·中 무역 분쟁으로 보는
전 세계 인공지능 우선권 경쟁

"인공지능"은 단지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날씨를 묻는 일에만 쓰이지 않는다. 우리 일상에서 인공지능이 쓰이는 영역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율주행은 여러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통정보 같은 빅데이터, 딥러닝, 센서 기술이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 레이더는 차량 주변을 정밀하게 분석해 최종적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이로 인해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교통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차세대 미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벤처 캐피털(Venture Capital, VC) 투자자들은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거금을 투자한 바 있다. 또한, 테슬라, 스페이스X 창업자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도 chatGPT를 개발한 OpenAI에 거금을 투자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또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강조하며,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적 경제, 안보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필두로 AI를 국가 경쟁력 및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로 바라보고, AI 기술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2024년 12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대선 경쟁을 치르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가 최종 당선됨에 따라, 올해는 트럼프의 지난 1기 행정부 시절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가 다시 개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는 2024년 말, 트럼프의 당선으로 현실화되었다. 즉, 지난달 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에서 25%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관세 인상에 관해 중국 정부도 대응 조치를 약속하며, 양국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AI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미중 무역 분쟁은 단순한 경제 갈등을 넘어, AI 기술 패권과 안보를 둘러싼 전략적인 대결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의 중립적 지대에서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 핵심: AI 반도체

차세대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AI 반도체이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의 학습과 추론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화된 비메모리 반도체이다. 기존 CPU와 GPU가 AI 연산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AI 전용이 아니어서 비효율이 존재했다. 이에 최적화된 NPU(Neural Processing Unit)가 등장했다.

먼저 CPU·GPU와 AI 반도체의 차이점에 관해 설명해 보겠다. 우선 CPU는 범용 연산이 가능하지만, 직렬 처리 방식이라 AI 연산에 비효율적이다. 반면 GPU는 병렬 연산이 가능해 AI 연산에 활용되지만, 본래 AI 용이 아니라 최적화가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AI 반도체(NPU, ASIC, FPGA)는 AI 연산에 최적화되어 고성능이고 저전력 구현이 가능하다.

AI 반도체는 크게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해 유연성이 높은 FPGA, 특정 목적에 맞춰 제작되어 성능과 효율성이 극대화된 ASIC, 인간 뇌 신경망(뉴런)을 모방한 차세대 AI 반도체로 주목받는 뉴로모픽 반도체가 있다.

이러한 AI 반도체는 인텔, 엔비디아,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을 선두로 개발 중이다. 국내 기업 중 SK텔레콤도 '사피온 X220'을 출시했다. 향후 AI 반도체 시장은 2023년에 343억 달러(한화 약 40조 원), 2030년에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3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창기에는 AI 모델 학습용 수요가 많았지만, 고차원적으로 발전하면 자동차나 스마트폰과 같이 AI 추론용 반도체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AI 반도체는 기존 CPU·GPU 대비 AI 연산에 최적화된 고효율 반도체로서 향후 AI 산업의 핵심이 될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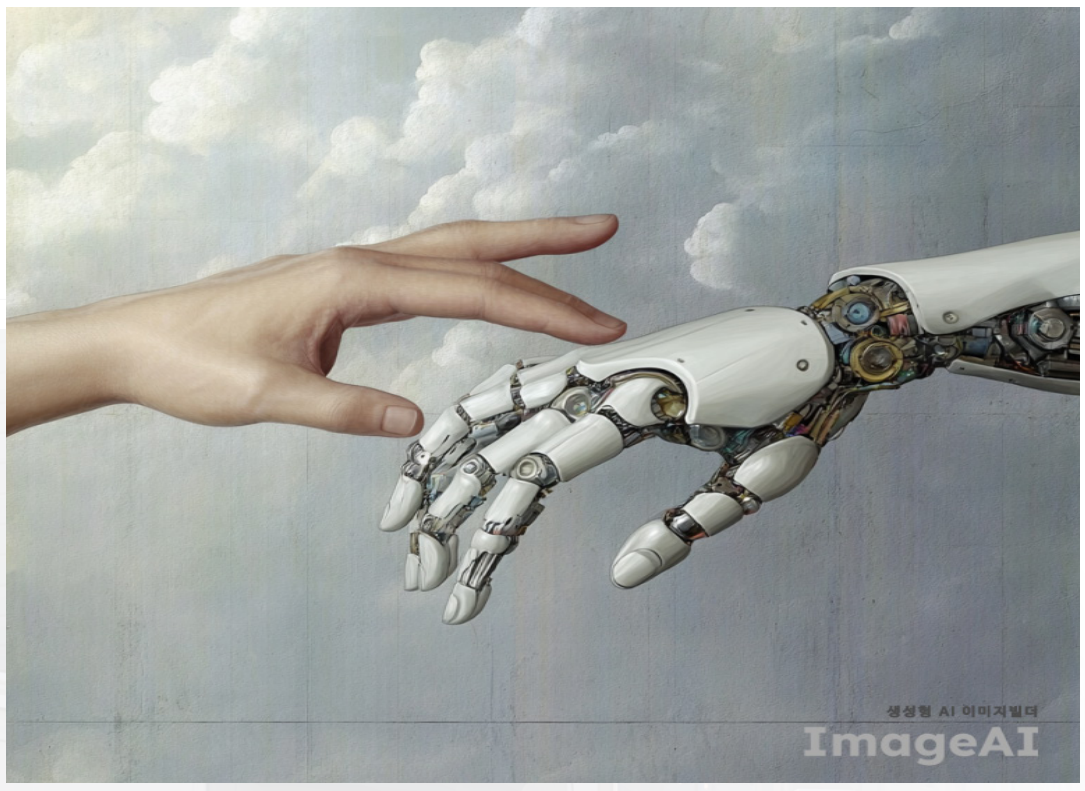
기술과 인간의 조화 필요성: 안전과 규제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한참 앞질러 나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다. 차량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차량 소유자 간의 책임 분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안전 기준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의 철저한 테스트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진=강릉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는데, 그중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강릉시는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 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녹색도시체험센터(초당동), 경포에서부터, 강릉역 KTX, 강릉시외버스터미널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 사진=AI를 이용한 미디어생성 Image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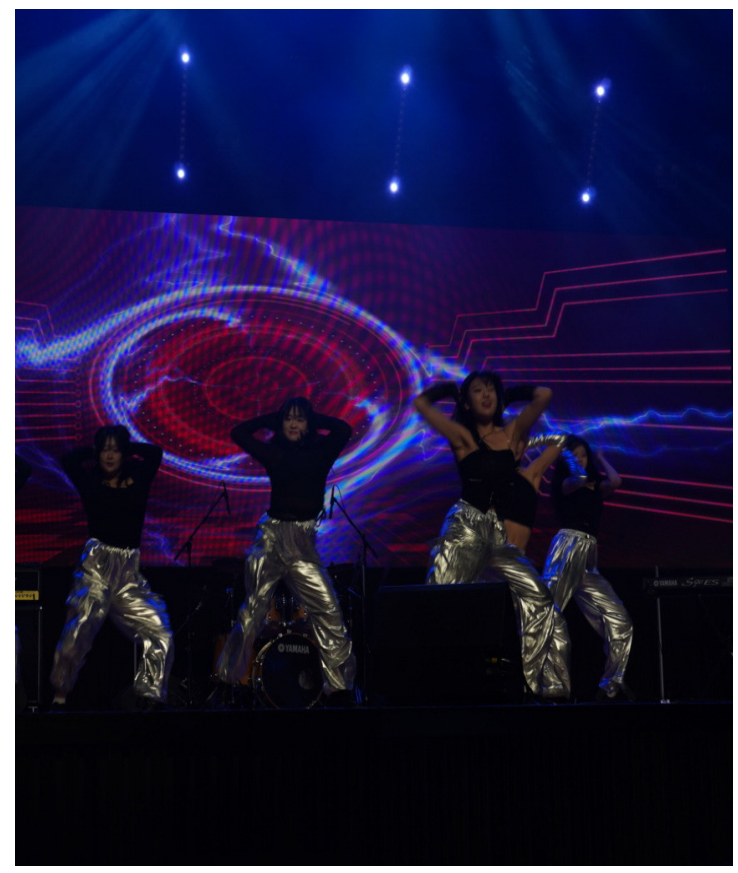
기술과 인간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만을 놓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상호 작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바티칸은 교황청 내부에서 사용하는 AI 지침에서 "인간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분야에서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며 AI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AI는 지난 몇 년 동안 유기적으로 발전해 온 많은 기존 자료를 종합한 것"이라며 AI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사회가 구축된 신뢰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인간을 보조하고 안전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위해 소비자, 규제 당국, 기술 개발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결국 인공지능과 관련 기술의 성장은 우리 사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동주 기자

25학번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2월 27일, 화창한 날씨와 함께 해람문화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대학입문교육(OT)'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학과주관 OT ▲입학식 ▲본부주관 OT ▲동문 특강 ▲성폭력 교육 ▲환영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서 첫 걸음을 내딛은 25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란다.

교내 동아리 둘러보기!

신입생들을 위하여 교내 동아리를 정리해보았다. 추후, 총동아리연합회 AND의 누리넷이나 에브리타임에 모집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예정이니 학생들은 원하는 동아리를 눈여겨보고 지원하길 바란다.

<중앙동아리>

체육분과

강릉 캠퍼스
- 스윙 (배드민턴)
- HIGH GO (배드민턴)
- FC GWNU (축구)
- 마린스 (야구)
- LOVE (테니스)
- 검도 동아리
- 버터플라이 (탁구)
- AIR (농구)

원주 캠퍼스
- 핀액션 (볼링)
- 에이스 (테니스)
- 스핀 SPIN (볼링)

문화분과

강릉캠퍼스
- 둥굴림 (사물놀이)
- Trap Queen (여자댄스)
- D.M.A (남녀혼성댄스)
- Ghetto Street (힙합)
- Sound Mixing (밴드)
- 2SSUE (보컬)
- G#. (기타)
- 극회알 (연극)

원주캠퍼스
- 루시우스 (치어리딩)
- 뉴를리 (여자댄스)
- E.G.O (힙합)
- 프레이즈 (밴드)
- 페르마타 (어쿠스틱밴드)
- OST (연극)

봉사분과

강릉캠퍼스
- ASEZ
- 로타렉트

원주캠퍼스
- RCY

학술분과

강릉캠퍼스
- GSI (영어회화)
- 통일동아리
- 들불 (문학)

종교분과
- IVF
- UBF
- CCC
- D.F.C
- J.D.M

취미/교양분과

강릉캠퍼스
- 농사직썰 (농사)
- 녹색광선 (영화/문학/잡지)
- ONE MORE (보드)
- 셔터 (사진)
- 판파니 (보드게임)
- Rookies (종합 서브컬쳐)
- 우리가그린그림(그림)

원주캠퍼스
- Tag the bills (패션)
- 해시태그 (사진)
- 보드홀릭 (보드게임)
- 팔레트 (그림)

<가등록 동아리>

강릉캠퍼스

전국오뎅협회 (밴드)
버디버디 (골프)
KICK (태권도)

▲총동아리 연합회 AND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왕적 대통령제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 과업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제왕적 대통령제'. 나라 전반의 인사는 물론,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까지 반려시키는 거부권과 최근 대한민국을 한바탕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권까지. 이러한 막강한 권한들 때문인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일꾼을 자처하던 자들이 한순간에 국민 위에 군림하곤 한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공약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다만 지금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헛된 기대를 품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MBC와의 전쟁,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담화,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까지. 되돌아보면 소통보다는 불통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 본인은 대선에서 다수에게 선택받았기에 이렇게 무대포식으로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과연 그럴까. 2022년 대선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윤 후보는 국민의 힘 대선 경선 과정(당원투표 50%/국민투표 50%)에서 당원투표에서는 선택받았으나, 국민투표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밀렸었다. 또 본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0.7% 밖에 차이 나지 않았고, 과반 50%에 못 미치는 48.5%라는 득표율이었다. 만약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일화를 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2.37% 득표)이 연합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진보 진영과의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한 것이다.



▲ 탄핵반대 집회 현장 사진=이준기

가정에 가정을 더 해봤자,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안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탄핵 심판도 끝날 무렵이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과업은 탄핵 결과에 따라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뉘어야 한다고 본다. 탄핵이 선고된다면, 해당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지지자들에게 애국을 자처하면서 더 이상 분열된 국론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또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87년체제 개헌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밀어붙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끝을 봐야 하는 것이다. 2022년 취임 당시, 청와대를 과감하게 벗어났던 그때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자랍스럽게 여겼던 물품 중 하나인 트루먼 대통령의 문구가 담긴 명패를 다시 한번 되읊어보길 바란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준기 기자

한 컷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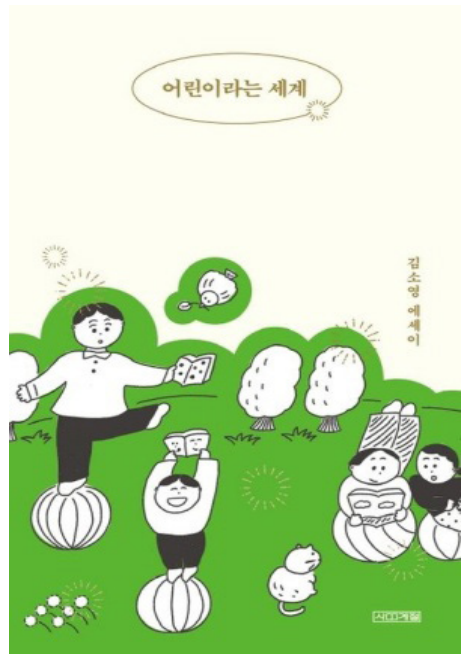


예상보다 따듯한 겨울의 날씨를 만끽하고 있는 해람지의 모습이다. 분수의 물방울들이 빛나는 햇빛에 반사되어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은 눈이 소복히 쌓여 해람지와 분수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기 힘들겠지만, 따듯한 봄날씨가 만발하면 오리들과 함께 다시금 만날 수 있으니 기다려 보도록 하자.

반소정 기자

문학 한 장

내면의 어린이, 안녕하신가요?



▲ 사진제공=교보문고

'노키즈존'이 등장한 지도 오래다. 벌써 국내에 500곳 이상이 생겨났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키즈존'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 일 뿐이지 '강제사항'은 아닌지라 노키즈존이 아이들에 대한 차별 행위라는 점만 공고히 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에게 노키즈존에 관해 물어보았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려고 노력이라도 했던가?

이 책에서 '어린이'라는 존재는 낯설다. 평소 어린이를 배려해 주고 있다는 어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책에서는 어린이가 어른을 얼마나 성심껏 대해주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 '어린이'라는 시기가 어른들 본인이 지나온 길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벼이 보기도 하는 듯하다. 마치 너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여기서는 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행동할 거라는 듯이.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몸이 작아서, 목소리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어른의 시선으로 보고 평가했었던 것 같다.

김소영 작가가 독서교실 수업을 하면서 마주한 아이들은 저마다 제각각의 색채를 지니고 있다. 유연하고 기발한 생각을 하는 어린이, 자신을 존중하는 어른을 만났을 때 정중한 태도로 화답하는 어린이, 작은 위험은 기꺼이 감수하는 용기 있는 어린이, 어른들의 잘못을 단호하게 지적하는 어린이 등 자신만의 색깔을 마구마구 뽐낸다. 책에 나온 아이들이 특별한 게 아니다. 대다수의 어른들이 지나칠법한 에피소드를 김소영 작가는 따스한 시선으로 이를 눈여겨보고 정성껏 기록한 것이다.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아는 것이 저의 큰 영광입니다.'
(머릿말, 9p)

누구나 한 때는 모두 어린이였다. 어린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의 세계는 넓어진다는 책 표지의 적힌 문장처럼, '어린이'라는 감각이 딱딱하게 퇴화한 어른으로서 다시 어린이의 눈높이로 그들을 바라보고 함께 호흡해야 어린이의 세계에 다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책은 어린이라는 세계에 진입하도록 도와준다. 어린이를 온전히 마주하는 경험은 내 안의 어린이를 마주해야만 할 수 있다. 모든 어른들이 살아가면서 뾰족뾰족한 어른의 마음이 비어져 나온다고 느낄 때마다 책장에서 이 책을 꺼내 읽었으면 한다.

'나는 어린이의 품위를 지켜 주는 품위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어린이 앞에서만 그러면 연기가 들통나기 쉬우니까 평소에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고, 사려 깊은 말을 하고, 사회 예절을 지키는 사람, 세상이 혼란하고 떠들썩할 때일수록 더 많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음만으로 되지 않으니 나도 보고 배우고 싶다.' (46p)

반소정 기자



황보민경 기자